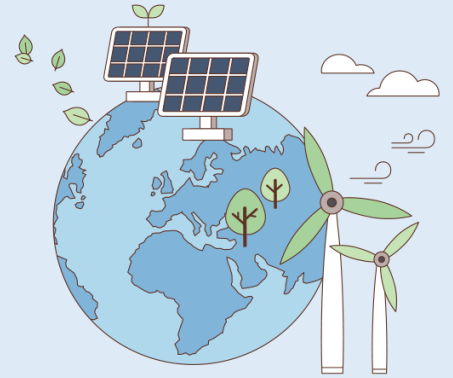


ESG

Weekly Focus



Economist/Asset Allocation 방인성_02)368-6145_isbang@eugenefn.com

E (Environment)

주간 국내 기사

- 탈석탄-ESG 통했다...대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5년새 절반 줄어 *연합뉴스*
- 건설업계도 ESG 채권발생 러시...포스코-SK-DL이앤씨 등 친환경 경쟁 *이투데이*
- "아이오닉=아이러닉"...<FT>에 현대차 비판광고 실린 이유는? *한겨레*
- SK '푸드테크' 공략, 중국 유통기업과 천역 펀드 *매일경제*
- LG디스플레이,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...탄소 중립 정책 동참 *조선비즈*
- 모트렉스, 중견기업 최초 ESG 채권 100억원 발행 *한국경제*
- 라면값 인상 뒤 팜유값 급등, 그 뒤에 우리 기업의 열대우림 파괴 의혹 *서울신문*
- SK에코플랜트, ESG 채권 연속 흥행...1조1200억원 물렸다 *이투데이*
- '도심 속 발전소' 짓는 대기업... ESG열풍에 사옥도 '친환경' 탈바꿈 *조선비즈*

G (Governance)

주간 국내 기사

- ESG위원회, 만들기는 쉽다...제대로 하는건 어려운 문제다 *매일경제*
- 금융지주, 너도 나도 중간배당...체력 충분하나 *뉴시스*
- 셀트리온 지배구조 단일화 시동, 헬스케어홀딩스-스킨큐어 합병 *머니투데이*
- 카카오 5년간 47개社, 네이버 30개社 사들여... M&A 톱3 모두 IT기업 *동아일보*
- 신세계, 스타벅스 코리아 품었다...지분 17.5% 추가 인수(중합) *뉴시스*
- 농심, 신춘호 회장 별세후 경영권 승계 순조롭게 진행... *글로벌이코노믹*
- F&F홀딩스, 지주사 전환 끝낸다...계열사 F&F 1.6조 공개매수 *한국경제*
- 녹십자홀딩스, 녹십자셀 CB로 합병회사 지배력 강화 *더벨*
- 속전속결 두산인프라코어 인수...지주부진 대우조선 합병 *이코노미스트*

S (Social)

주간 국내 기사

- 삼성전기, 더 독해진 '무재해' 목표... "중대재해 시 경영진 불이익" *뉴스핌*
- SK매직, 방문점검원 '부당하고' 갑질 논란 *우먼타임스*
- 참여연대 " LG 채용비리, '공정' 가치 역행 " *서울파이낸스*
- '상생' 택한 현대차 노사... 기아-한국지엠-르노삼성엔 아직 '안갯속' *글로벌경제*
- '87억 임금체불' 지적에...네이버 " 선택근로제 특수성 봐야 " *한국경제*
- HMM 파업 위기 현실로... " 임금 올려 " VS " 월세 투입 " *한국경제TV*
- SK이노, ESG보고서에 'LG화학 배터리 분쟁' 담은 이유는? *파이낸셜뉴스*
- 금호타이어 노조 임금협상 합의안 '부결'...진통 예고 *뉴시스*
- " 열사병 3명에 처벌? " " 살인 면죄부 " ...중대재해법까지 180일 *뉴스1*

연기금 & 스튜어드십 코드

주간 국내 기사

- 한은 " EU-미국 탄소국경세 도입시 우리 수출 연간 1.1% 감소 " *뉴시스*
- 美 증권거래위원회 "연말까지 기후변화 위험 공시 의무화 제안" *조선비즈*
-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그만!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*중소기업뉴스*
- 수은,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1000억원 출자 *뉴시스*
- 블랙록 이어 피델리티도 투자 기업에 ESG경영 압박 *이데일리*
- 日 모든 상장사, 올해부터 기후변화 위험 공시 의무화 *한국경제*
- 사학연금, ESG 로드맵 본격화...공무원연금도 평가범위 확대 *연합인포맥스*
- 스튜어드십코드는 '이미지'가 아니다 *더벨*
- 벤처투자도 ESG가 대세...VC들, 심사 기준 도입 잇따라 *한국경제*

주 : E, S, G,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.

ESG FOCUS UPDATES

지속가능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

- 한국금융연구원 21.07.23

E

-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은 대폭 위축된 반면 탄소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침. 이러한 현상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설정하고 있는 배출량 감축 목표(2°C 시나리오)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함
- IMF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은 톤당 2달러에 불과한데, 세계은행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의 5%만이 파리협약의 탄소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가격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산함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방안에 있어서는 적절한 탄소배출권 가격 설정, 지속가능 경제성장 경로 확보,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친환경화 등 세 가지 사항이 강조됨
- 최근 녹색대출,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채권, ESG 펀드 등 지속가능 금융상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정보공시 부족 등 지속적인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도 노정되고 있음
- EU를 필두로 상당수 국가들이 지속가능금융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그린워싱의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에 착수하고 있으나, 아직 국제공조 부재 속에서 개별적인 사법권 및 산업 단위로 각각 상이한 접근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
- 특히 지속가능 금융상품 유지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규제 완화 및 규제 회피 경향의 발생으로 인해 국제 기준이 느슨한 형태로 설정되면서 그린워싱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
- 최근 이탈리아 G20회의 및 영국 G7회의에서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글로벌 공통의 접근방식 설계 방향이 핵심의제로 채택됨. 또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G20 산하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회의 조직 확대 개편을 언급한 바 있음
-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가 공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련 금융자산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는 만큼 공통의 공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함

KfW의 지속가능 프로그램 추진 동향

- KDB 미래전략연구소 21.07.26

S

- KfW는 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로 '독일과 전세계 경제·생태·사회 생활 여건 개선 목표를 경제 및 사회 전환'을 동 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.
- 이를 통해 파리협약 이행 지원,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달성 기여 등 지속가능성 관련 원칙들을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
- KfW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5개의 영역(지속가능경영, 은행업무, 직원관계, 운영,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)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달성기한과 이행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마련함
- 5개 행동영역 중 은행업무와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외부 고객과의 활동이 나타나는 영역이며, 특히 은행업무 영역은 지속가능금융 제공과 연관됨
-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로서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최소 지원 비율(신규 약정액 중)을 설정하고 자금공급에 주력함('12년 35%에 설정한 이래, '19년부터는 38%로 상향)
-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촉진, 순환경제 지원, 그린본드 투자 지속 등 프로그램 이행으로 독일의 그린경제 전환을 유도하고, ESG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(EU Taxonomy 등), 신용평가 프로세스 등을 정비함

국내 수소발전(연료전지) 현황과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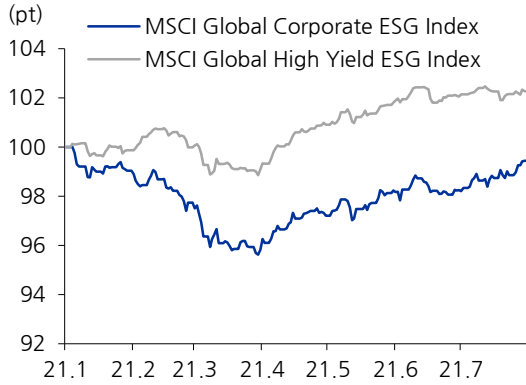
- KDB 미래전략연구소 21.07.26

G

- 수소발전(연료전지)은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고, 물 이외의 부산물이 없어 오염 물질 발생이 미미하고 소음과 진동도 적은 친환경 전원설비임
- 또한 수소발전(연료전지)은 도심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송전탑-송전선로 무필요 분산형 전원(송전탑-송전선로 무필요)이며 태양광, 풍력 등 다른 분산형 전원 대비 설비의 크기가 적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함
- 수소발전(연료전지) 산업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, 지속적인 시장 규모의 확대가 전망됨. '19년 기준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 48% 수준임.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제조사로는 두산퓨얼셀, 한국 퓨얼셀, 불룸SK퓨얼셀 등이 대표적임
-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수소위원회(Hydrogen Council)에 따르면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'30년까지 연평균 11% 성장할 전망이다
- 이에 정부는 기존 RPS(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화) 제도에 수소발전(연료전지)이 포함되어 있으나, 연료전지 보급 촉진을 위해 수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HPS 제도를 추진 중임
- 다만 수소발전은 타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('19년 기준 수소발전 발전단가는 241원/kWh, '20년 기준 태양광 발전단가는 112원/kWh)
- 연료전지의 대형화와 내구성 제고, 수소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이 관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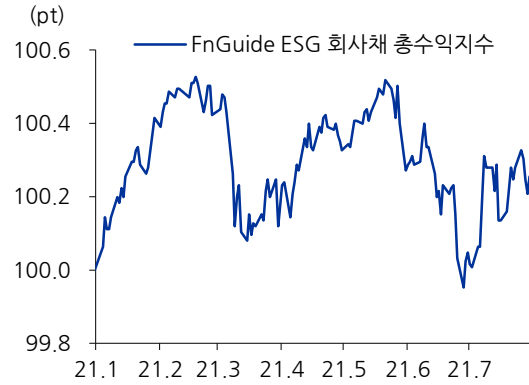
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

MSCI Global ESG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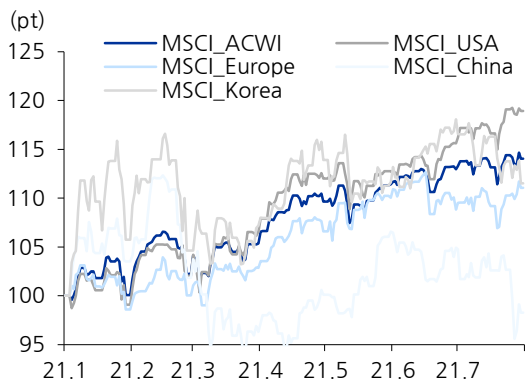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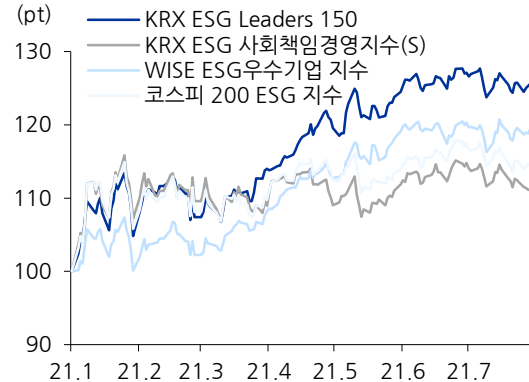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유진투자증권
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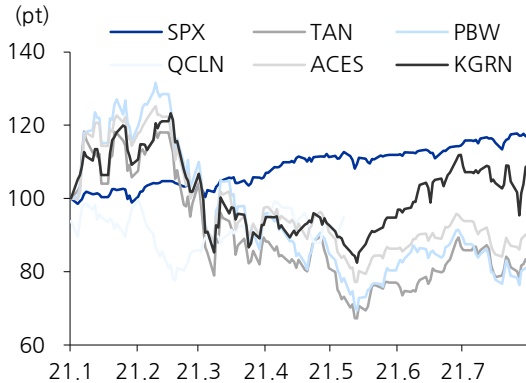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국내 ESG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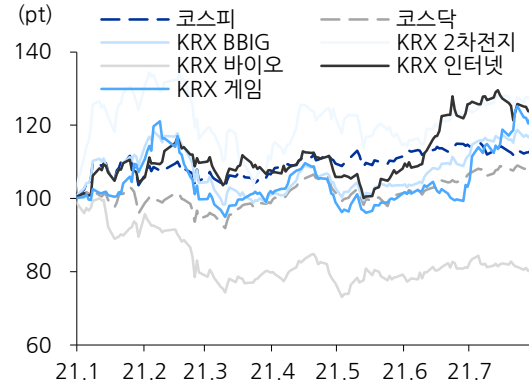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유진투자증권
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대체 에너지 ETF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국내 K-뉴딜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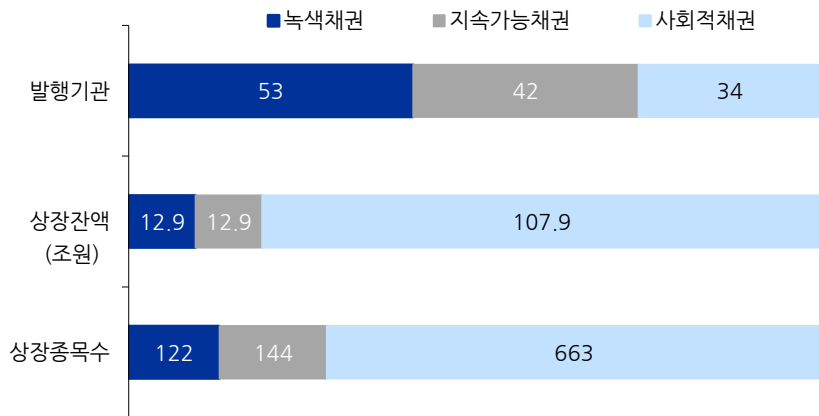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유진투자증권
주: 2020.12.31 종가=100을 기준으로 지수화

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

채권종류	종목명	상장일	표면이자율	상장잔액 (백만)
녹색채권	한국서부발전 49-1(녹)	2021/07/30	1.67900	110,000
녹색채권	한국서부발전 49-2(녹)	2021/07/30	1.92000	130,000
녹색채권	한국서부발전 49-3(녹)	2021/07/30	2.00200	30,000
지속가능채권	SK 에코플랜트 168-2(지)	2021/07/29	2.61000	200,000
사회적채권	롯데캐피탈 417(사)	2021/07/29	1.93800	50,000
녹색채권	한국남부발전 61(녹)	2021/07/29	2.38000	5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6(1-1)(사)	2021/07/29	1.42200	163,3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6(1-2)(사)	2021/07/29	1.86400	34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6(1-3)(사)	2021/07/29	2.22100	210,000
사회적채권	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-16(1-4)(사)	2021/07/29	2.27100	90,000
녹색채권	한국남동발전 50-1(녹)	2021/07/27	1.52300	190,000
녹색채권	한국남동발전 50-2(녹)	2021/07/27	2.09800	100,000

자료: SRIbond, 유진투자증권

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



자료: SRIbond, 유진투자증권

주: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

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2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8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1.06.30 기준)